

월영대기 대재회산(月影臺記 臺在檜山)

서지정보

서명	월영대기 대재회산(月影臺記 臺在檜山)
저자(성명/자/호)	신지제(申之悌), 순보(順甫), 오봉(梧峰)
판사항	
책크기	
발행자	
발행년	
주제	기행일기
작성시기	미상
소장처	(현소장처) 한국국학진흥원

해제

『월영대기(月影臺記)』는 신지제(申之悌 ; 1562~1624)가 마산 합포에 있는 월영대 주변의 경치와 누대의 아름다움과 고운(孤雲) 최치원(崔致遠 ; 857~?)의 학문과 인품을 기록한 것이다.

월영대의 위치와 최치원이 쓴 월영대의 글씨를 소개하고, 지우들과 배를 타고 남포에서 바다를 따라 월영대를 방문할 때의 경치를 기술하였으며, 물의 성품과 달의 성품이 체와 용이 되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극찬하였고, 또 최치원의 학문이나 인품을 알지 못하고 월영대에 와서 시가를 읊조린다면 이태백이 달을 따다가 돌을 줍고 소동파가 적벽의 아래에서 곱기만 한 시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술하고, 민간에 전해오는 최치원의 전설적인 이야기 등도 소개하였다.

신지제는 고려 충신 효자 신우의 후예로 자는 순보(順甫), 호는 오봉(梧峯), 본관은 아주(鵝州)이다. 학봉 김성일, 유일제, 김언기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과에 급제한 뒤 예안현감 재임 중 임진란이 일어나자 예안, 안동 겸관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항쟁했다.

전주 판관 재임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으며, 인조반정 후 동부승지로 불렸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, 뒤에 사림이 공의가 준발하여 그가 강학하던 서당에 장대서원을 창건하고 송은 김광수, 회당 신원록, 경정 이민성과 함께 제향되었다.